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쉬워져

보증료율 0.128%로 인하

보증금 한도 4억 이하까지

보증한도 100%까지로

변제 뒤 경매 6개월 유예

전세금안심대출 보증기간 2개월로 연장

온라인 시스템 도입 추진

악수하는 임종룡 - 진웅섭 1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부 합동 연찬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깡통전세 우려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국토부와 HUG는 올해부터 보증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인하한다. 즉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보증료는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절감하는 셈이다. 법인의 경우도 9.7% 포인트 인하한 0.205%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원과 4억원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한도도 기존에는 주택가격 90%이내로 제한했지만 100%까지 확대하고,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도 100%로 적용한다.

보증가입의 편의성도 높인다. 그동안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준 뒤 부동산을 경매에 부쳤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가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HUG는 대신 변제해준 뒤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에게 반환 기회를 줄 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합친 '전세금안심대출' 기간도 연장한다.

기존에 HUG는 사고가 발생하면 한 달 안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했다. 이에 대출은행이 원금상환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이나 신용불량으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론 보증기간을 2개월로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이나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필요서류를 보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과 서류 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가입은 HUG홈페이지(www.khug.or.kr)와 각 지사(1566-9009), 6개 위탁은행(우리·KB·신한·하나·농협·광주)서 가능하다.

이밖에 HUG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도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0.173%에서 0.145%로 인하한다.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인 것을 0.166~0.494%로 인하한다.

정비사업의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보증료율을 0.450~0.920%에서 0.449~0.901%로 인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제공하는 모기지보증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14%내외 인하한 0.169~0.803%으로 적용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준공 전 임차인 모집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요율도 0.083~1.066%에서 준공 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1.2% 인하할 방침이다.

하자보수 보증은 2년(15%), 3년(40%), 5년(25%), 10년(20%)로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게임 특화 노트북 '오디세이' 출시

삼성전자 'CES 2017' 혁신상 수상작

삼성전자는 게임에 특화된 노트북 '오디세이'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디세이는 삼성전자 최초로 게임에 특화된 노트북으로 지난 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CES 2017'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오디세이에는 7세대 인텔 코어 i7·i5 프로세서, 최신 그래픽 카드, PCIe SSD, 2400MHz 속도의 DDR4 메모리를 탑재해 어떤 게임이라도 최적의 환경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게이밍 노트북 대비 2배 이상 넓은 면적의 방열 통풍구와 대용량 듀얼 팬으로 구성된 '헥사 쿨링 시스템'을 탑재해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의 저하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또 풀HD 광시야각 저반사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어느 각도에서도 정확하고 정교한 게임 컨트롤이 가능하며,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 해준다.

이 밖에도 ▲게이밍에 자주 사용되는 W·A·S·D키를 강조한 백릿(투과형 액정표시장치) ▲오목하게 파인 곡면 형태의 키보드 ▲게임의 프레임레이트,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쉬보드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오디세이는 실시간으로 최적의 컬러와 명암비를 찾아주는 '비디오 HDR' 기능을 지원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오디세이는 15.6인치 모델로 나이츠 블랙, 스톰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탑재된 프로세서에 따라 각각 200만원(NT800G5M-X78W), 180만원(NT800G5M-X58)이다. /뉴시스

금융지주 고객정보, 계열사 공유 허용

경영관리 · 영업목적… 고객 거부권 보장 · 사고시 형사처벌

금융그룹에 대한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된다. 단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 핵심 요소라고 판단해 내부 경영관리 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 공유를 허용했다.

단,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방지한다. 또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금융위가 업계 간담회 및 전문가 TF, 공청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 금융그룹 내 겸직·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 및 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 자회사 인사와 평가 등 권한강화를 통해 금융지주 책임경역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작업도 이뤄진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도 강화된다. /뉴시스

BC카드, 설 연휴 이벤트

BC카드는 설 연휴 할인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17명을 추첨해 5000원 캐시백 등 경품을 제공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230명을 추첨해 전통고택 숙박권 등을 준다.

온·오프라인 매장 10곳서 설 선물세트를 사면 최대 50% 할인해 준다.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추첨으로 1700명에게 뮤지컬 티켓, 영화 시사회 초대권 등을 준다. /뉴시스

한은 "美 대선발 국제 금융시장 불안, 진정"

지난달 중순 이후… 금리 상승세 둔화 · 주가 상승 · 달러 강세 흐름 약화

한국은행은 12일 "미국 대선 결과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난달 중순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리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지난달 14일 전후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후 하락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미국의 국채금리(10년)는 작년 11월 2.38%에서 12월 2.44%로 뛰더니 이달 10일 기준으로는 2.38%로 종전 수준을 회복했다.

일본은 일본은행(BOJ)의 장기국채 매입규모 확대 등으로 상승 흐름이 제한됐고, 독일 등 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정책 유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흥국 국채금리는 미 대선 이후의 불안심리가 진정되면서 멕시코·터키·중국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락세다.

주가는 유가상승,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선진국의 경우 11월 이후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3.8%, 일본은 5.4%, 독일은 8.9%, 영국은 7.2%다. 신흥국 주가도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일제히 올랐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ECB와 BOJ의 완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강세를 지속하다 이달 들어 강세 흐름이 약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이달 들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등으로 강세 흐름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1169.1원에서 이달 10일 1194.6원으로 2.1% 하락했다. /뉴시스